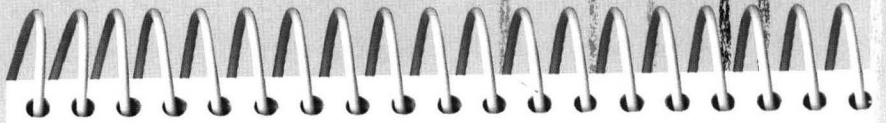



5월 특집

## 한국 어린이책은 강하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우리 출판계에 적용시킨다면 '어린이책 출판은 성인출판의 아버지'란 말이 된다. 자본, 유통, 번역 등 한국 출판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동도서 저작권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수상소식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어린이책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공은 지속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콘텐츠를 개발한 출판사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좋은 책을 찾아다니는 우리 어머니들의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책 출판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어린이(어린이출판)를 키울 수 있었던 우리 어른(성인출판)의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물론 지나친 경쟁 등으로 인한 어린이책 출판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특집이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어린이책 출판이 더 '강해지고' 성인출판 역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이책이 갖춰야 할 덕목들

이것만은 꼭! 미래의 시민을 위하여

“어린이는 미래의 시민이며 동시에 미래의 인류이다.” 이 말은 필자가 즐겨 쓰는 말이다. 그 미래의 시민을 위하여 미래를 열어 주는 확실한 열쇠 중의 하나가 독서이다. 매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어린이책은 수백 권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많은 책 속에서 좋은 책을 고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면 어린이책이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

어린이책의 공통적인 덕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에 맞는 작품이어야 한다. 물론 명저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명저이지만, 대개의 경우 한 시대가 지나면 당대의 어린이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전의 외국 작품을 오늘날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고, 그것이 어느 출판사에서 누구의 번역으로 나왔건 상관없이 부모 자신이 읽었던 낯익은 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읽히는 것은 좋지 않다. 세계명작이라는 책 또한 서양인의 가치관에 따라 씌어진 작품이므로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구별 없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동양인이 읽든 서양인이 읽든 그 문화적 배경을 딛고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린 시절에 가능하면 우리의 문화에 젖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의 문화에 익숙해진 다음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강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 시절 서양문화를 숭배하고 흠모하며 익숙하도록 교육받은 기성세대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낯설어 하고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화인식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그러한 잘못된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셋째, 외국 작품의 경우 번역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일역본을 대본으로 여겨 출판한 결과 도서의 질이 본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재구성되거나 서양을 배경 소재로 하여 재창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글의 주제를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장르별 덕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글의 전개가 매끄러워야 한다. 어린이가 책을 읽으며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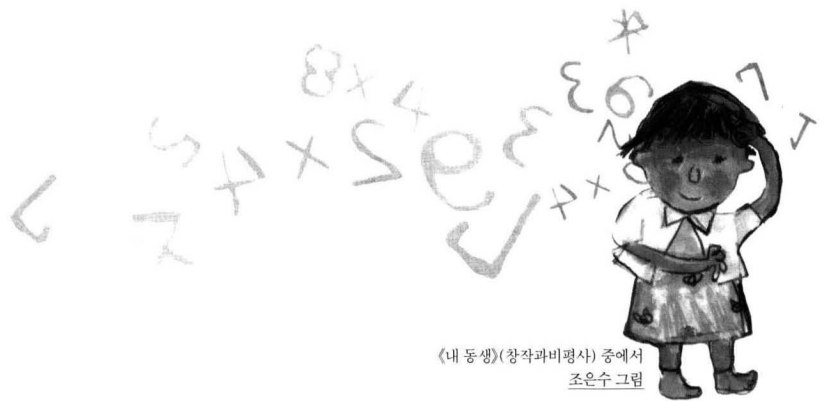
글 | 이재철(아세아아동문학학회 공동회장)

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꿈과 재미를 함께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말을 살린 풍부한 단어가 세심하게 쓰인 작품은 어휘력을 높여 준다. 삽화의 밝고 아름다운 색채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격형성에 도움을 주며 색채감각에 빨리 눈뜨게 한다. 사건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클라이맥스가 있는 것이 좋다.

둘째, 동화의 경우이다.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는 내용이 좋다. 동화는 환상성을 기초로 하며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특징이 곧 환상이다. 어린이의 환상은 그것이 다소 몽환적이라 할지라도 상상력의 근원이며, 창조력을 확대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말초적 흥미를 주는 불량한 언어, 자극적인 사건과 과장된 표현 등으로 자칫 가치관을 혼돈하게 하는 내용, 아무런 알맹이도 없이 허망한 우스갯짓과 말놀음의 연속, 부도덕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위인전과 수기의 경우이다. 자라는 어린이에게 훌륭한 사람을 흠모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이며,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흔히 위인



《내 동생》(창작과비평사) 중에서  
조은수 그림

이라고 하면 일세의 영웅을 그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그런 영웅의 일대기를 미화한 위인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는 마땅히 활기 있는 21세기의 민주 시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회에 훌륭하게 적응해야 하므로 그러한 위인전을 비판적인 독서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많이 읽히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의 진솔한 수기나 일기가 자라는 세대의 귀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 가난, 장애, 고아, 근로 청소년, 전쟁의 재난 속에 꿋꿋이 살아 온 삶의 향기를 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위인전과는 또 다른 감동과 교훈을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 줄 것이다.

**넷째, 동시와 동요집이다.** 흔히 독서라 하면 산문으로 된 책,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림책, 동화, 위인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서지도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결한 정서를 청결하고 향기롭게 함양할 수 있게 사물을 정서적으로 관찰하고 즐기는 내용을 담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고운 말을 담아야 한다.

**다섯째, 일반교양 및 학습 도서, 그리고 잡지다.** 즐거움을 얻고, 여가를 보내기 위한 독서뿐만 아니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과목의 내용을 풀이하거나 보충한 자습서나 참고도서를 보면 단순히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제작된 책이 많다. 이런 책은 교육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제공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즐겁게 어린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책으로서의 바람직한 덕목은 물론 어른이 어린이가 가졌으면 하는 게 있다면 독서의 효과가 그 바탕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정작 독서의 당사자인 어린이는 좋은 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역설적으로 어린이가 싫어하는 책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고자 하

는 이에게 큰 시사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공부와 관련이 있는 책은 싫다. 지루하고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주인공이 죽은 책은 읽기가 싫다.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만 있는 책도 싫다.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사는 모습과 생각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책이 훨씬 흥미롭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는 재미없다. 위인들의 이야기는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다 배운다. 또 어머니가 강제로 읽으라고 사 주는 책도 읽기 싫다. 거의가 공부에 관한 것이고 너무 교훈적이다. 너무 착한 어린이가 나오는 책도 싫다. 장난도 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런 친구가 주인공이 있으면 좋겠다. 똑똑한 애가 주인공이면 약이 오른다.”

